

주담대 5% 돌파 가능성...가계 부실 비상

〈주택담보대출〉

일자리 없고 소득 줄고 이자부담 커져 취약계층에 치명타 저축은·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연체율까지 상승...대책 시급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미국이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인 전망도 나오면서 대출금리 상승세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는 없고 소득은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렸다.

◇대출금리 줄줄이 올라·주택담보대출금리 연 5% 돌파 가능성도=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전액 기준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은 연 1.82%로 공시했다. 전담보다 각각 0.03%포인트 오른 것이며, 전액 기준은 9개월 연속 상승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변동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이 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들의 변동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연 3.49~4.69%에서 오는 18일 연 3.52~4.72%로 0.03%포인트 올린다고 예고했다. 신규취급액도 연 3.33~4.53%에서 연 3.36~4.56%로 올리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를 올린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이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구조다.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리 상승과 한국 시장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져 대출금리를 끌어 올리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해 안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고정금리형 대출도 한은 기

준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 늘어·취약계층 타격 우려=대출금리가 오르면 서민들의 가계 이자부담도 덩달아 가중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지금도 이자 갚기가 어려운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의 잔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가계대출 부실화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3조6천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43.43%(16조3000억원) 급증한 규모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8월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40조원, 올해 3월 50조원을 넘어섰다. 이 속도가라면 연내 60조원도 돌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은행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속도도 역대 가장 빠르다. 올해 1~5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1조3000억원으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이처럼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7%로 작년 말보다 0.6%포인트 뛰었고,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1.65%로 0.27%포인트 올랐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한 곳으로 몰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즉각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 후 최저

통계청, 올 1~5월 취업자 전년 동월 비 월 14만9000명 증가

올해 들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월평균 14만9000명 증가했다.

1~5월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000명 감소를 기록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가 가장 적었다. 작년 1~5월 취업자가 월평균 37만2000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1월에는 취업자가 33만4000명 증가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2월에 증가 폭이 10만4000명으로 급감했고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으로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다 지난 달 7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 32만명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6~12월 취업자가 월평균 44만2000명가량 늘어야 한다.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도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올해 5월 실업률은 4.0%로 2000년 5월 4.1%를 기록한 후 5월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해당 통계가 제공되는 1999년 6월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였다. 경제활동의 '허리'로 꼽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8개월,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벨리댄스로 월드컵 응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5일 1층 백화점 입구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벨리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롯데소셜 제공>

■ 로또복권 (제811회)

| 당첨번호 | 2등 보너스숫자 | |
|------------------|---------------|-----------|
| 8 11 19 21 36 45 | 25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6개 숫자일치 | 2,524,148,197 | 7 |
|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 60,098,767 | 49 |
| 3 5개 숫자일치 | 1,369,057 | 2,151 |
| 4 4개 숫자일치 | 50,000 | 104,155 |
| 5 3개 숫자일치 | 5,000 | 1,703,788 |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환전이벤트'

오늘~8월 17일 환율우대·경품 증정 동시 진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창립 50주년 기념 환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환율우대와 경품증정 두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환율우대 이벤트는 최근 5년 이내 광주은행에서 환전거래를 한 고객들에게 환율우대 안내문자가 전송되고, 해당 문자를

영점점 직원에게 제시하면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환율우대 혜택은 주요 통화(USD, JPY, EUR)는 80%, 중국 위안화(CNY)는 50%가 제공된다.

경품증정 이벤트는 최근 5년 이내 환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행사기간 미화 5백달러 상당액 이상 거래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5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2등(100명)에게는 3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한 광주은행은 이번 행사와 관계없이 VIP고객, 여행스케치적금 가입고객, 직장인급여통장 거래고객 등에 대해서는 70~30%의 환율우대 혜택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환전이벤트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면 좋겠다"며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고객의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객님께 더 많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100년 은행이 되기까지 고집과 동행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무역업체 80% "대북사업 참여"

유망 사업 분야 인프라·건설·자원 가장 많아

무역협회 1176기업 조사

국내 무역업체 10곳 중 8곳은 앞으로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대북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남북교역에 대한 무역업체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남북교역이 재개될 경우 대북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80.0%로 조사됐다.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일반교역 등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36.1%), '저임금 노동력 활용'(25.1%), '도로, 전기 등 사회간접시설 개발 관련 사업 참여'(12.5%), '동북 3성 등 인접 시장 진출 개진'(11.7%) 등이다.

유망사업 분야는 '인프라·건설·자원'

(35.1%)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전기·전자·통신·기계'(17.3%), '관광'(15.3%), '섬유·의류·생활용품'(13.5%), '철강·금속·화학제품'(10.6%), 등이었다.

대북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북한 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 부족'(22.0%), '북한 당국의 통제 및 간섭'(18.6%),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 변화'(13.7%),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11.6%) 등을 언급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46.9%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39.8%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그다음은 '보통'(9.4%), '부정적'(2.8%), '매우 부정적'(1.1%)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